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고용 탈(脫)공업화의 원인과 시사점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고용 탈(脫)공업화의 원인과 시사점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i

1. 고용 탈공업화의 현황 1

2. 고용 탈공업화의 원인 3

3. 시사점과 대응 방안 9

■ HRI 경제 지표 18

■ 고용 탈공업화의 현황

국내 고용시장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뚜렷한 탈(脫)공업화 (de-industrializ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8.7%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07년 현재 17.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이 최종수요 1억 원당 약 9.6명으로 건설업(16.3명), 서비스업(17.9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 고용 탈공업화의 원인

고용 탈공업화의 원인은 첫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먹고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명목 기준으로 제조업 국내수요/서비스업 국내수요 비중은 1970년 70%에서 1980년에 9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둘째,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로 고용이 이동하고 있다. 제조업은 특성상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 1인당 실질부가가치로 측정된 생산성은 제조업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16배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2배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 경우 제조업에서 노동 투입을 감소시키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저생산성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셋째, 공정자동화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감소가 고용 탈공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중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까지 약 80%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빠르게 축소되어 2007년에는 64.2%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취업자수 규모를 기준으로 생산직 근로자수는 1991년 383만 명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265만 명으로 감소하여 16년 동안에 118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넷째,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계 공학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크게 진척됨에 따라 제조업 내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게 된다. 2000~09년 기간 동안 제조업 해외투자 누계는 4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10년 동안 경제 전체에 약 50만명, 제조업 내 26만명의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생산공정상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으로 고용창출력이 간접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제품의 기능화, 복잡화에 따른 부품 수의 급증, 신흥공업국들의 부상 등으로 기존 국내에서 생산되던 중간재가 수입으로 대체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제품 최종수요가 1억 원이 증가할 경우 그 생산 과정에 필요한 제조업 중

간재 수입액은 1970년 1,830만원 어치에서 2007년에는 2,66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는 그만큼의 제조업 내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 시사점과 대응 방안

(시사점) 이상의 분석에서 제조업 고용창출력 하락은 경제 발전에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정부 산업정책도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성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제조업이 취약해진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제조업 생산기반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금융 산업에 주력했던 영국, 미국 등과 생산공정의 상당 부분을 해외 아웃소싱에 의존했던 일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주요 기반으로 작동하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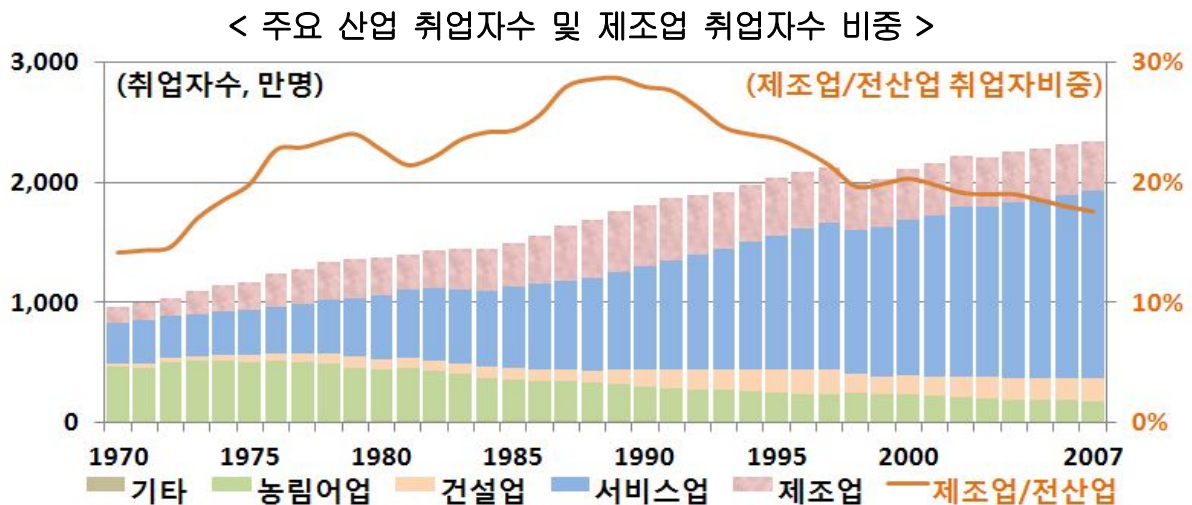
(대응 방안) 한편, 서비스업의 육성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의 급속한 고용창출력 저하 현상을 방지할 경우 고용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고용흡수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정책과 병행하여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하락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 시장에 대한 FTA 확대,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침투율 제고 등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노력으로 고용의 총량적인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종합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외국자본과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일컫어 신규일 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 유치의 주체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중심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권한 확대와 지원 강화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고용흡수력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전반적인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이나 국산화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천 기술이나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경쟁력은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연구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유망한 기술이 단기간 내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금융·세제 상의 지원, 기술 보증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전통제조업과 신기술과의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 등을 통해 산업연관성을 강화시켜 제조업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산업과 IT, B2B 융합된 신산업의 창출, 의료서비스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연계 등을 통해 산업간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용흡수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고용 탈공업화의 현황

○ 제조업 고용 비중의 하락

- 국내 고용시장에서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뚜렷한 탈공업화¹⁾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8.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현재 17.6%에 이르고 있음
-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70년 34.3%에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7년에는 66.7%에 달하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1970년 136만 명에서 1991년 516만 명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412만 명 수준을 기록함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 기준.

-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는 노동집약형 업종인 경공업의 취업자수 감소 때문이며 중화학업종의 취업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1) 탈공업화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의 개요」를 참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 취업자수는 약 88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경공업은 109만 명이 감소하여 경공업이 제조업 고용 감소를 주도함
- 반면 중화학공업 취업자수는 1990년 277만 명에서 2006년 310만 명으로 오히려 33만 명이 증가함
- 특히 기술·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 IT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정밀 기계 업종도 1990년 80만 명에서 2006년 90만 명으로 1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중화학 업종 중에서 비금속, 철강 등의 업종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하위 업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만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6
제조업	311	364	505	482	429	417
경공업	164	174	203	159	128	94
중화학공업	132	170	277	303	287	310
석유화학	25	30	46	50	50	50
비금속	15	17	22	22	14	12
철 강	10	11	15	15	12	12
금속제품	11	15	24	32	30	37
일반기계	16	21	43	49	45	48
전기·전자·정밀기계	35	47	80	80	83	90
자동차	10	13	31	36	33	38
조선	7	12	8	12	13	15
기타 중화학공업	4	5	8	8	7	7
기타제조업	15	20	25	19	15	13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업 분류.

주: 1) 조선업의 1980년 수치는 1981년 자료를 이용

2) 본 보고서에서 경공업은 OECD STAN 산업 분류중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TEXTILES, TEXTILE PRODUCTS」, 「LEATHER AND FOOTWEAR」,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을 합하여 계산.

○ 제조업 취업유발계수의 감소

- 전산업적으로 취업유발계수가 추세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유발계수의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2007년 기준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당 9.6명에 불과하나 건설업은 16.3명, 서비스업은 17.9명에 달하고 있음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명/10억원)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농업	1768.2	593.2	277.8	164.4	90.4	66.6	49.7	45.9
광업	747.1	253.4	147.7	54.6	24.1	14.2	11.4	10.8
제조업	544.1	207.9	102.4	62.3	28.2	15.3	10.8	9.6
전력·수도·가스	423.2	130.3	42.5	24.0	14.8	7.1	4.4	3.9
건설업	667.2	208.5	116.9	61.5	35.0	22.4	17.1	16.3
서비스업	759.0	252.5	139.5	79.1	43.2	25.4	18.9	17.9
기타	649.3	210.4	123.8	73.9	32.8	18.7	16.3	15.0
전산업	785.9	251.2	127.3	72.2	36.2	21.0	15.3	14.0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취업유발계수란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했을 때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
 2)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7개 산업으로 통합 계산되었음
 3) 전산업은 산업별 산출액 비중을 이용한 가중평균임
 4)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은 실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최종수요액의 인플레이로 인한 착시 현상에 원인이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에서도 취업유발계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2. 고용 탈공업화의 원인

○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 1인당 국민소득과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간에는 역(逆) U자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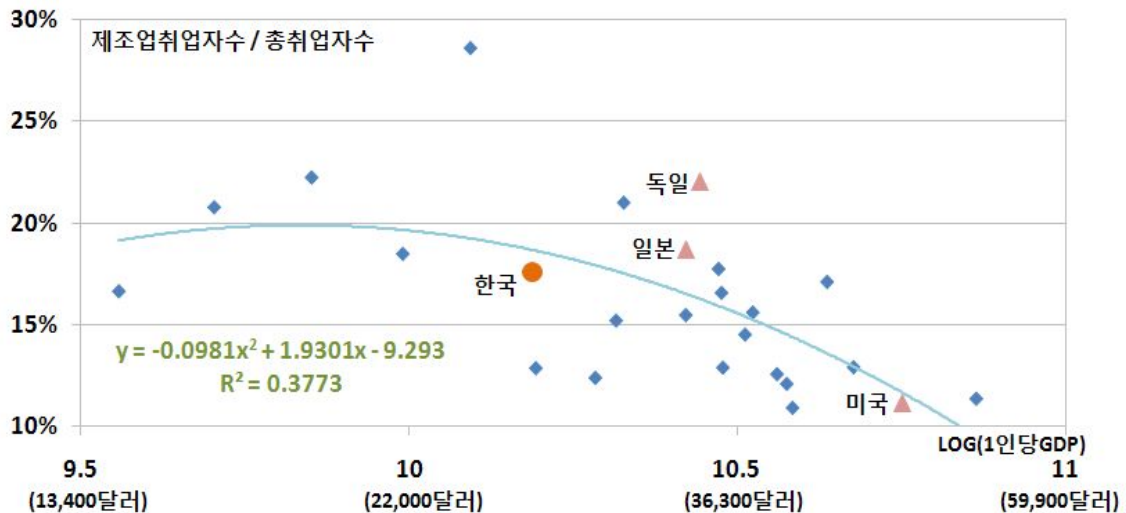
-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정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짐
- 그러나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품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

2) 이론과 실제의 제조업취업자수 비중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는 【별첨 2】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참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 실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해 본 결과 명목 기준으로 제조업 국내수요 / 서비스업 국내수요 비중이 1970년 70%에서 1980년에 9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29%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제조업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 OECD 국가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다만 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수/총취업자수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독일이나 일본 등과 같이 자국산 상품에 대한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국가는,
 - 제조업 제품에 대한 높은 수출 수요가 국내 수요 위축을 상쇄시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 감소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와 제조업취업자수/총취업자 비중의 산포도 (2007년) >



자료: ILO 및 IMF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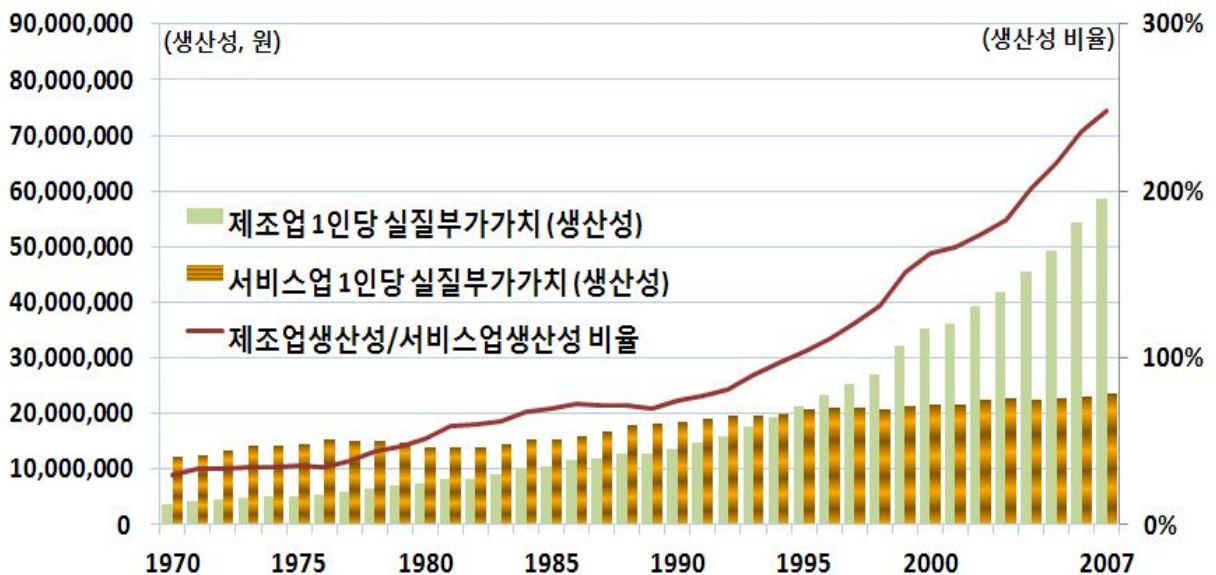
주: 1) 1인당 GDP는 IMF의 「Gross domestic product based on purchasing-power-parity (PPP) per capita」 항목에 대한 자연대수값

2) 이론상의 관계는 제조업취업자수/총취업자수도 자연대수값을 취해주어야 하나 설명의 편의상 실제값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그러나 제조업취업자수/총취업자수의 자연대수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 R²값이 0.4179로 오히려 설명력이 높아짐.

○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에 의한 노동의 이동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
 -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혁신 노력, 정보화 투자 증대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게 됨
 - 반면 비교역재가 대부분인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나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가 크지 않음
-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제조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은 2000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1970년 368만 원에서 2007년 5,852만 원으로 약 16배가 증가함
 -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1,236만 원에서 2,362만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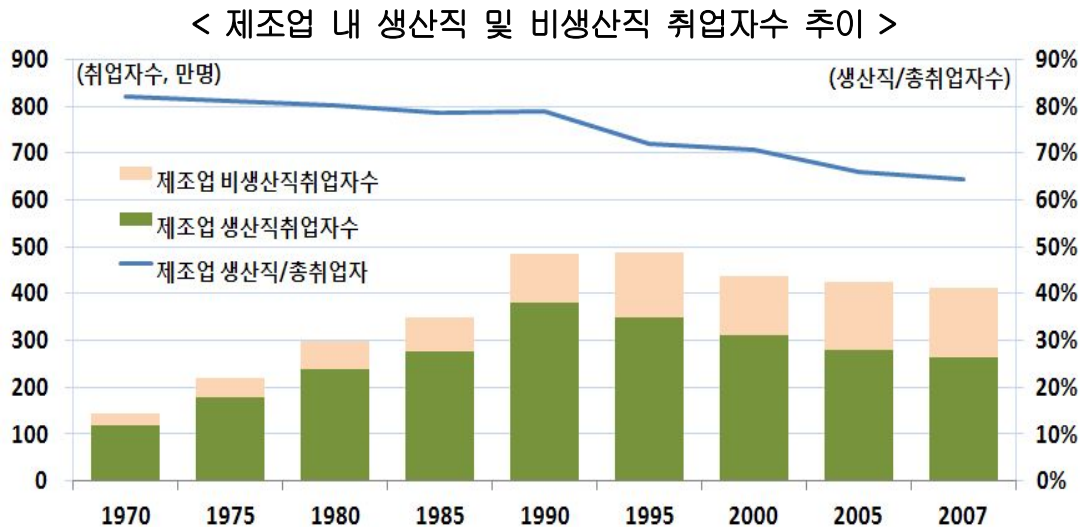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동하게 됨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는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게 됨
 - 이 경우 노동 투입을 감소시키더라도 비슷한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됨

○ 생산공정 자동화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수요 축소

- 기계 공학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크게 진척됨에 따라 제조업 내에서도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제조업 취업자중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까지 약 80%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빠르게 축소되어 2007년에는 64.2%까지 하락함



자료: ILO LABORSTA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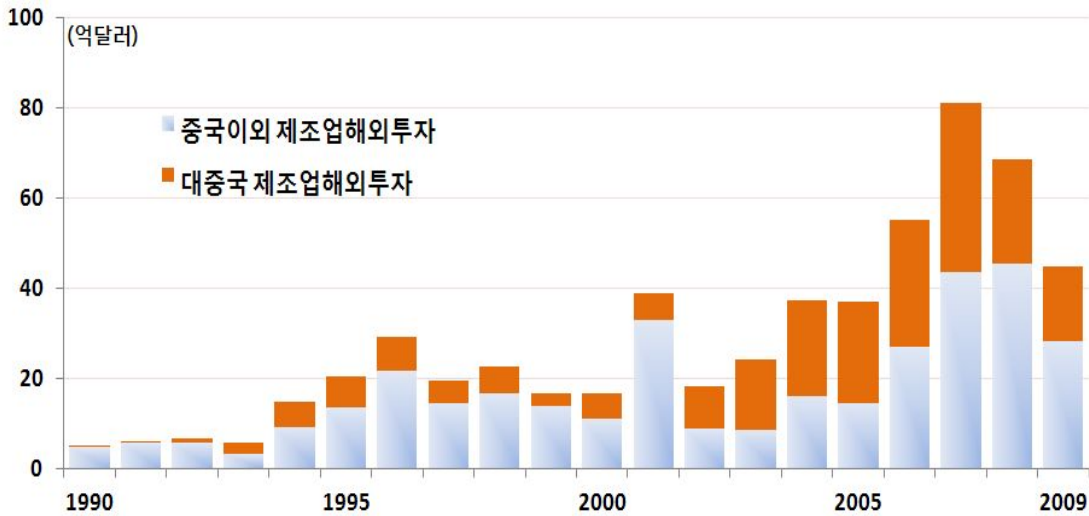
- 주: 1) 제조업 생산직은 최요철·이상호 (2008)에서 사용된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업 내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1968의 「Major Group 7/8/9 Production and related workers, transport equipment operators and labourers」 과 ISCO-88의 「Major Group 7 Craft and related trade workers」, 「Major Group 8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Major Group 9 Elementary occupations」 을 합한 값을 이용
- 2) ILO LABORSTA상의 취업자 통계와 OECD STAN상의 취업자 통계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

- 취업자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생산직 근로자수는 1990년 근방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생산직 근로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제조업 내 생산직 근로자수는 1991년 38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265만 명에 그치고 있음
 - 반면 제조업 내 비생산직 근로자수는 1970년 2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 147만 명을 기록하고 있음

○ 해외투자 확대에 의한 제조업 공동화

- 중국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제조업 해외투자는 2000년 17억 달러에서 2007년 81억 달러로 크게 증가
 -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한 69억 달러 및 45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해외투자/제조업 국내설비투자 비중은 2005년 8.9%에서 2006년 12.1%, 2007년에는 16.0%로 증가
- 반면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정체를 지속하고 있음
 - 2000~2009년 국내로 유입된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37억 달러(신고 기준)에 불과한 실정
- 제조업 해외투자의 확대는 그 만큼의 국내 고용 창출 여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됨
 - 2000~2009년 기간 동안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는 422억 달러로 이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 값을 이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 약 10년 동안에 경제 전체에 약 50만 명, 제조업 내에는 26만 명의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³⁾

< 제조업 해외투자 추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투자금액 기준.

○ 생산공정상 노동집약적 공정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 제조업 제품의 복잡화, 개도국의 빠른 공업화 등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산중

- 제조업 제품이 기능화, 복잡화됨에 따라 한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 품목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또한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들의 빠른 공업화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중간재의 경우 이들 지역으로의 글로벌 아웃소싱이나 조립공정시설의 이전도 가능한 상황임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산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냄

- 과거 국내에서 충당할 수 있었던 중간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그 만큼의 생산 능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3) 자세한 계산 방법은 【별첨 3】 「제조업 해외투자에 따른 취업감소효과」 를 참조.

- 실제로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제조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수입유발효과 중 상당 부분이 제조업 중간재 수입 유발효과에 다시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제품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그 생산 과정에 필요한 수입제조업제품은 1970년 0.183단위에서 2007년 0.266단위로 높아지는 추세임

< 제조업 제품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시의 수입유발계수 추이 >

제조업 제품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시 유발되는 -	1970	1980	1990	2000	2005	2007
총 수입중간재 단위	0.296	0.383	0.313	0.372	0.385	0.409
광산품을 제외한 수입중간재 단위	0.258	0.248	0.256	0.283	0.284	0.295
제조업제품 수입중간재 단위	0.183	0.186	0.222	0.251	0.255	0.266

자료: 각 연도 산업연관표를 7부문으로 통합한 이후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계산한 값임.

3. 시사점과 대응 방안

○ (시사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으로 작동하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상의 분석에서 제조업 고용창출력 하락은 경제 발전에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조업 고용창출력의 다섯 가지 원인중 서비스 수요 증가, 생산성 격차, 공정 자동화 등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대세적인 현상임
- 또한 해외투자, 글로벌 아웃소싱의 경우도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임

-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이는 최근 제조업이 취약해진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음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제조업 생산기반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금융 산업에 주력했던 영국, 미국 등과,
 - 생산공정의 상당 부분을 해외 아웃소싱에 의존했던 일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을 경험한 바 있음

- 따라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으로 작동하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대응 방안) 고용흡수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전략과 병행하여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하락 속도를 늦추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해외 시장에 대한 침투율 제고 등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노력으로 고용의 총량적인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국내 제조업의 생산 단위당 고용유발효과가 낮더라도 제품 판매를 양적으로 크게 늘릴 수 있다면 총량 측면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

- 제조업 제품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계 주력 상품시장인 선진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동시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임
 -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 침투력을 높이기보다는

FTA의 확대, 세일즈 외교 강화 등 큰 틀에서의 시장 확보 노력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둘째, 종합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외국자본과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일으켜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회복을 촉진해야 할 것임
- 한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 인프라, 노사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의 의미를 의미하는 '팩키지형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 유치의 주체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중심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권한 확대와 지원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산업 융합을 통해 제조업 고용흡수력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현재 전반적인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이나 국산화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원천 기술이나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경쟁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력은 크게 뒤쳐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관련 연구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 유망한 부품·소재 기술이 단기간 내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넷째, 전통제조업과 신기술과의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 등으로 산업 연관성을 강화시켜 제조업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보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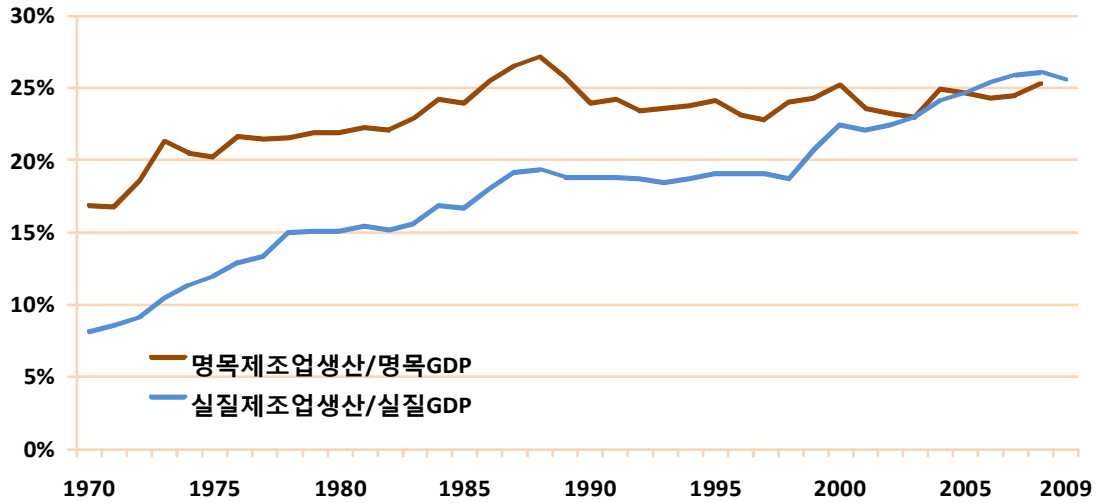
- 국내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낮은 것은 부품·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효과와 같은 산업간 연관성이 낮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전통산업과 IT, BT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의 창출, 의료서비스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연계 등을 통해 산업간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용흡수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별첨 1】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의 개요

- 탈공업화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정의함⁴⁾
 - 경제적 비중은 우선 생산측면에서 제조업 실질부가가치가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또한 고용측면에서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율도 탈공업화 현상을 파악하는 변수로 사용하고 있음
- 기존 연구 결과들에서 탈공업화의 원인으로 크게 소득의 증가, 생산성 격차 증대, 남북무역 (North-South trade) 확대 등을 들고 있음
 - 대부분 연구 결과들에서 일정 수준의 1인당 소득까지는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서비스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짐
 - Rowthorn and Ramaswamy(1999)는 선진국들의 탈공업화는 대부분 내부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로 설명된다고 분석함
 - 반면 Wood(1994, 1995)의 경우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제조업 고용 비중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함
- 생산 측면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계정상 명목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실질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4) 제조업의 고용비중 하락에 초점을 맞춘 탈공업화에 대한 연구로는 Rowthorn and Ramaswamy(1997, 1998)과 Wood(1994, 1995) 등이 있으며, 제조업 실질생산의 실질GDP에 대한 비중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상무부(1986)와 Summers(1986)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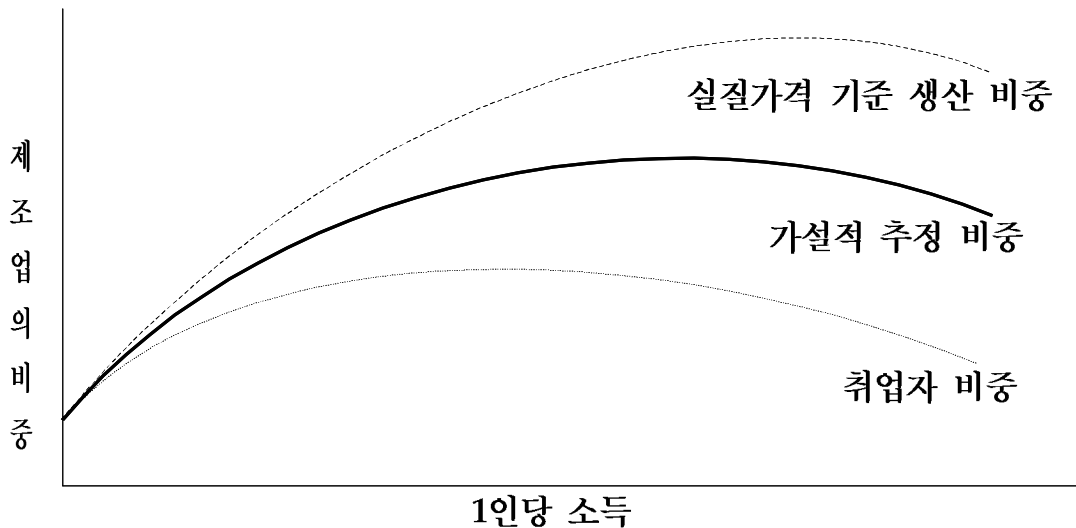
< 명목 및 실질 기준 제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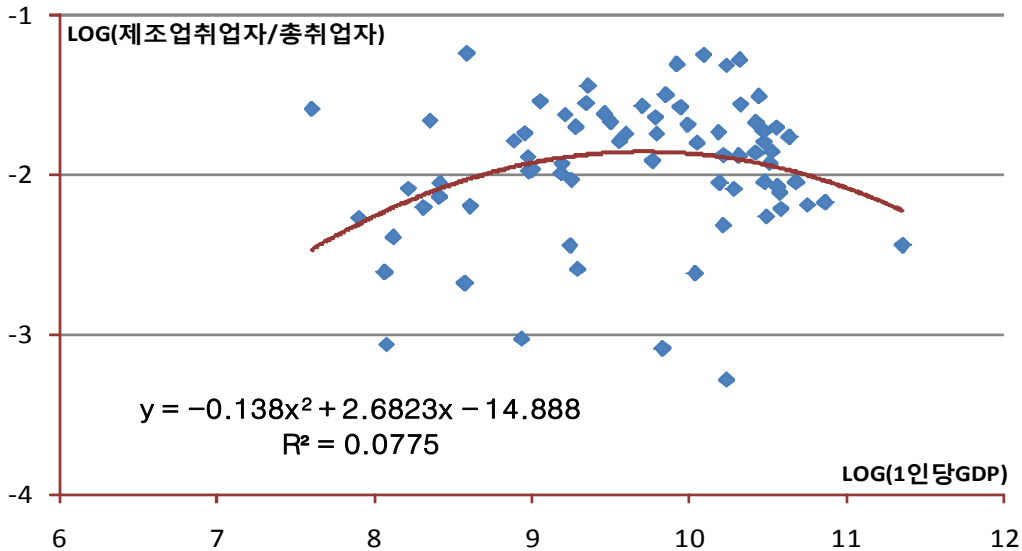
【별첨 2】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 이론상 실질생산 및 취업자수의 제조업 비중과 1인당 GDP의 관계 >



자료: Rowthorn, R. and R. Ramaswamy(1999), "Growth, Trade, and Deindustrialization", IMF Staff Papers, Vol. 46, No. 1.에서 인용.

<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과 1인당 GDP의 산포도 (2007년) >



자료: ILO 및 IMF 통계상의 73개국 자료를 이용한 자체 추정.

【별첨 3】 제조업 해외투자에 따른 취업감소효과

<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 추정 >

	제조업 해외투자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취업감소인원 (명)	
	억달러	10억원	경제 전체	제조업 내	경제 전체	제조업 내
2000	17	1,901	15.3	7.9	29,083	14,990
2001	39	5,016	14.4	7.4	72,237	37,361
2002	18	2,288	13.5	7.0	30,884	16,036
2003	24	2,883	12.6	6.6	36,323	18,944
2004	37	4,275	11.7	6.1	50,015	26,219
2005	37	3,789	10.8	5.7	40,916	21,577
2006	55	5,251	10.2	5.4	53,561	28,259
2007	81	7,530	9.6	5.1	72,285	38,159
2008	69	7,578	9.0	4.8	68,201	36,026
2009	45	5,719	8.4	4.4	48,037	25,393
합계	422	46,228	—	—	501,542	262,96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2005년, 2007년의 경우 7부문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나머지 연도는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추정

2) 해외투자는 달러 금액을 연평균 환율로 환산한 값

【별첨 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

- 2007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총산출액중 31.1%가 수출되며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에는 각각 9.1% 및 4.9%가 배분됨
- 반면 서비스업의 총산출액중 51.0%가 국내에서 소비되며 수출 수요에는 6.7%만이 충당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출액에 대한 부문별 수요 비중 (2007년 기준) >

		제조업	서비스업
총산출(총수요)		100.0%	100.0%
	중간재 수요계	54.9%	38.3%
	최종재 수요계	45.1%	61.7%
	소 비	9.1%	51.0%
	투 자	4.9%	4.0%
	수 출	31.1%	6.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국산거래표상의 산업을 7부문으로 자체 통합.

【참고 문헌】

강두용 (2006),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중 교역의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ISSUE PAPER, 산업연구원.

오상봉 (2001), 「Deindustrialization Theory and Its Evidence in Korea」, Occasional Paper No. 50., 산업연구원.

하병기·오준병 (2003), 「한국경제의 탈공업화 현황과 평가」, 정책연구자료 2003-72., 산업연구원.

최요철·이상호 (2008),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제62권 통권 714호 pp.23-58, 한국은행.

Ahearne, Alan G., John G. Fernald, Prakash Loungani, and John W. Schindler (2006), "Flying Geese or Sitting Ducks: China's Impact on the Trading Fortunes of Other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 No. 886,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06),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2000 Volume 2. Data, I.D.E. Statistical Data Series No.90, IDE-JETRO.

Jane T. Haltmaier, Shaghil Ahmed, Brahim Coulibaly, Ross Knippenberg Sylvain Leduc, Mario Marazzi, and Beth Anne Wilson (2007), "The Role of China in Asia: Engine, Conduit, or Steamroller?,"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904,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Rowthorn, R. and R. Ramaswamy (1997), "Deindustrialization : Causes and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WP/97/42.

_____ (1999), "Growth, Trade, and Deindustrialization" IMF Staff Papers, Vol. 46, No. 1.

Wood, Adrian (1994), North-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Changing Fortunes in a Skill-Driven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_____ (1995), "How Trade Hurt Unskilled Work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9.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6	2007	2008 ^P	2009 ^P				연간	2010 ^E	
					1/4	2/4	3/4	4/4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2	5.1	2.3	-4.3	-2.2	1.0	6.0	0.2	4.5	
	최종소비지출 (%)	5.1	5.1	2.0	-2.0	0.7	1.7	4.7	1.3	3.5	
	민간소비 (%)	4.7	5.1	1.3	-4.4	-1.0	0.7	5.8	0.2	3.3	
	총고정자본형성 (%)	3.4	4.2	-1.9	-7.4	-2.3	0.4	7.1	-0.2	4.9	
	건설투자 (%)	0.5	1.4	-2.8	2.8	5.1	4.4	5.0	4.4	3.2	
	설비투자 (%)	8.2	9.3	-1.0	-23.1	-17.3	-7.0	13.3	-9.1	9.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4	59	-64	86	132	103	101	421	18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61	146	-133	30	170	102	124	426	261.6
		수출 (억 \$)	3,255	3,715	4,220	744	907	950	1,046	3,646	4,120.4
		증감률 (%)	(14.4)	(14.1)	(13.6)	(-25.2)	(-20.8)	(-17.4)	(12.3)	(-13.6)	(12.9)
		수입 (억 \$)	3,094	3,568	4,353	714	737	848	921	3,221	3,855.2
증감률 (%)	(18.4)	(15.3)	(22.0)	(-32.7)	(-35.8)	(-31.0)	(0.7)	(-26.0)	(19.7)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5	4.7	3.9	2.8	2.0	2.3	2.8	3.1	
실업률 (%)		3.5	3.2	3.0	3.8	3.8	3.6	3.6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62	68	94	44	59	68	75	62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56	929	1,103	1,418	1,286	1,239	1,176	1,280	1,110	

주: 1)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

2) 국민계정 2008년 및 2009년 수치는 2010. 3. 26. 한은 보도자료 결과를 반영.